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초읽기

# 권영수 “IPO 성공 자신… CATL 대등하게 경쟁할 것”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부회장)

(〈닝더스다이〉)

온라인 간담회 통해 비전 발표 해외 거점 통해 원가경쟁력 향상 “CATL과 시총차이 이해 안돼”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부회장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부회장이 성공적인 기업공개(IPO)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파크원 본사에서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고 중장기 사업 비전을 발표했다.

권 대표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으로 LG화학 주가가 조정 받는 것에 대해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을 만나면 LG화학을 팔고 LG에너지솔루션을

사려고 하는 게 많은 거 같다”며 “화학 주식을 매각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조정 받는 것이 아닌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G엔솔이 상장하

면 이후 화학이 지분을 82% 갖게 된다”면서 “시가총액은 봐야겠지만 최소 60조원 이상의 가치를 보유하는 것인데 화학 시총이 50조원이다. 단기 조정을 거치면 화학 주주가치가 회복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또 “IPO 미팅을 하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다”며 “투자자를 다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을 정도다. 상장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자신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1~12일 국내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을 앞두고 3일부터 해외 기관 수요예측을 진행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에 총 4250만주를 공모한다. 주당 희망 공모

가액은 25만7000~30만원이다. 공모가 상단을 기준으로 산출한 공모 예정 금액은 12조7000억원, 예상 시가총액은 70조원이다.

예상 시총에 대해서는 “공모가대로라면 70조원 정도 예상되는데 경쟁사인 중국의 CATL(닝더스다이)과 시총 차이가 너무 큰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라며 “앞으로 그 갭은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CATL 시총은 현재 230조원을 넘는 규모다.

권 대표는 “CATL은 중국의 자국산 사용 정책으로 어렵지 않게 매출 늘릴 수 있었다”며 “글로벌 기업이 되려면 미국과 유럽 고객을 확보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다. 수출 수주 잔고를 비교하면 우리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CATL은 중국 공장에서 인건비가 싸고 재료와 장비도 모두 중국산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지만 품질과 성능이 어떨지는 모르다”며 “우리는 해외 공장이 있고 원가경쟁력을 높이면서 향후 수익성 차이를 좁혀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배터리 사업이) 반도체 이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중이고, 조만간 CATL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상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고객사에 믿음을 주는 기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oul.co.kr

## 기관·일반 배정물량 3400만주… 상장일 유통 10% 미만 가능성도

신주 3400만주 등 4250만주 공모 공모가, 희망가 밴드 최상단 전망

역대급 기업공개(IPO) ‘대어(大魚)’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 입성을 앞두고 공모 절차에 나선다. 국내 IPO 역사상 최대 금액을 공모하는데, 기관투자자의 청약 경쟁률과 유통 가능 물량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11~12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한다. 이어 오는 18~19일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진행한 뒤 2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총 공모주식수는 신주 3400만주와 LG화학의 구주매출 850만주 등 총 4250만주이며, 공모 희망가 밴드는

(LG에너지솔루션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가능여부	구분	공모 후 주식수	공모 후 지분율	상장 후 매도 제한
유통제한 물량	최대주주 : LG화학	1억9150만주	81.84%	상장일로부터 6개월
	공모주주 : 우리사주조합	850만주	3.63%	상장일로부터 1년
유통 가능 물량	공모 주주	3400만주	14.53%	-

25만7000~30만원이다. 전문가들은 희망 밴드 상단에서 공모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모가 최상단 기준으로 산출한 공모 금액은 12조7000억원, 시가총액은 70조원에 달한다. 공동주관사 7곳(KB·대신·미래에셋·신영·하나금융·하이투자·신한금융투자)은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후 적정 시총을 112조원으로, NH투자증권은 101조원, 한국투자증

권과 SK증권 등은 100조원으로 산정했다.

주민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LG에너지솔루션은 주요 완성차 메이커 대부분을 고객으로 확보했다”며 “전기차 업체 1위 테슬라는 물론 완성차 톱(Top) 6개 업체 중 3개 업체(현대차·GM·스텔란티스)와는 합작법인을 설립했으며, 국내 배터리 업체 중 가장 많은 조인트벤처(JV)를 설

립해 향후 추가수주, 신기술 개발, 원료 확보 측면에서 경쟁사 대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윤희진 SK증권 연구원은 “LG에너지솔루션이 공모가 산정을 위해 선정한 비교기업 ‘중국 CATL’은 지난해 기준 기업가치 대비 상장 전 영업이익(EV/EBITDA)이 80배 수준”이라며 “그러나 LG에너지솔루션은 시총을 100조원으로 산정해도 이 값이 43배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상장 이후 수급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길수록 상장 당일 유통 가능 물량이 적어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란 공모주를 배정받는 조건으로 보유 주식을 특정 기간 안에 팔지 않겠다는 약정을 의미

한다. 의무보유 기간은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설정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의 최대 주주인 LG화학의 물량 81.84%는 상장 후 6개월간, 우리사주조합 물량인 3.63%는 상장 후 1년간 매도할 수 없다.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 배정물량은 3400만주, 14.53%다. 이중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물량을 제외하면 상장 당일 유통 가능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상장일에 10% 미만의 주식만 유통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앞서 상정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15.03%, SK바이오팜 13.1%, SK바이오사이언스 12%와 비슷한 수준이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 임인년 이끌 테마주는 ‘2차전지·AI·반도체 소켓’

### 株라쿨라의 종목

파워로직스·엠플러스 외

“2차전지, 소재주 대비 장비주 소외 AI·반도체 여전히 성장 초입 판단”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이 2022년 박스권 장세 속 시장을 이끌어 갈 테마로 2차전지, 인공지능(AI), 반도체 소켓을 제시했다.

10일 리서치알음은 해당 섹터 내 유망 종목으로 ▲파워로직스 ▲엠플러스 ▲트윈 ▲마인즈랩 ▲마이크로컨텍솔 ▲다이를 꼽았다.

이동현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지난해 2차전지, AI,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간 일등공신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그러나 2차전지 장비주는 소재주 대비 소외됐고, AI와 반도체는 여전히 성장의 초입에 있다고 판단된다.

(2022년 2차전지·AI·반도체 유망주)

종목명	모멘텀 예상시기	시가총액 (억원)
파워로직스	4분기	2,792
엠플러스	하반기	2,021
트윈	하반기	2,086
마인즈랩	3분기	1,895
마이크로컨텍솔	1분기	1,143
다이	1분기	3,150

/리서치알음

지금까지 투자자의 상상력으로 주가가 올랐다면 2022년은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2차전지의 경우 플래그십 전선 및 중저가 멀티카메라 모듈 전문 생산 업체인 ‘파워로직스’와 2차전지 조립장비 제조업체 ‘엠플러스’다.

AI 산업은 스마트 팩토리에서 비주요

휴먼까지 다양한 산업군의 디털라이제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 ‘트윈’은 불량품을 자동 정밀 검사하는 시스템(머신비전 검사)을 개발하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업체이며, ‘마인즈랩’은 각 직업군에 맞는 인공인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DDR5 본격 도입이 시작됨에 따라 반도체 번인 소켓이 성장 사이클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컨텍솔’, ‘다이’에 주목하라는 조언이다.

마이크로컨텍솔은 메모리 반도체의 번인 테스트를 위한 번인 소켓 및 모듈 소켓을 생산하는 업체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매출 비중은 각각 50%, 40%에 달한다.

다이는 반도체 후공정 번인 테스터 장비 및 번인 보드 업체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는 유일한 검사 장비 업체다.

/박미경 기자

## “해외거점 확대… 전기차 중심 사업 확장”

### IPO 간담회

이지트로닉스

공모가 밴드 1만9000원~2만2000원

전기차(EV)의 심장인 전력변환장치 제조업체 이지트로닉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이지트로닉스는 10일 온라인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시장 상장에 따른 향후 전략과 비전에 대해 밝혔다.

이지트로닉스는 전력변환장치 중 직류와 교류를 서로 바꿔주는 인버터, 그리고 고전압과 저전압을 교환해주는 컨버터를 개발·제조하는 업체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전력을 사용하는 기기에서는 필수적인 부품들이다. 이지트로닉스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통신장비와 방산

차량 등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강찬호 이지트로닉스 대표이사는 “이지트로닉스의 주요 매출처는 EV와 5G용 전력저장장치에 모여 있는 편”이라며 “이 시장 자체가 쇠퇴기나 저무는 시장이 아닌 이제 막 시작된 시장이라 향후 안정적인·장기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을 선점한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지트로닉스는 EV분야에서 높은 효율과 신뢰도를 가진 제품 기술력을 기반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여기에 해외 거점 확대를 통해 앞으로 다양한 상품차 제품 공급이 증가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EV용 전력변환장치 매출액의 비중은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이지트로닉스의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총 공모주식수는 98만주, 공모 희망가 밴드는 1만9000~2만2000원이다. 1월 13~14일 수요예측을 거친 후 20~21일 일반청약을 받는다. /박미경 기자